



## I. 추진배경

1961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

한세대가 지난 현재까지도 “평”, “돈”, “근” 등의 비법정계량단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EU,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정착단계 진입

따라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 ~ 2010년)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 지원추진

## II. 법정계량단위 사용 필요성

국제적 통용성 확보

원활한 국제 교역 및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방지하고, 첨단기술개발 및 초정밀 측정을 위한 국제단위계 사용이 필수

※ 우리나라는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고 1964년 국제단위계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

계량값 환산에 따른 불편 제거

대다수 국민이 불편요한 단위 환산과 예측이 어려운 척관 단위(평, 돈, 근, 인분)에 대한 불편 제거

특히, 과거 “평”은 직(30.303 cm)으로 표기된 자로 측정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측정 할 도구가 없이 “m<sup>2</sup>”로 측정 후 “평”으로 재 환산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GDP(800조원)의 1/3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

※ 1% 오차로 연간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 초래

비법정계량 단위는 품목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 1 평 : 투지 3.3m<sup>2</sup>, 유리 0.09m<sup>2</sup>

※ 1 근 : 과자 150g, 야채 200g, 과일 400g, 고기 600g

※ 1 마지기 : 경기지역 495m<sup>2</sup>, 충청지역 660m<sup>2</sup>, 강원지역 990m<sup>2</sup>

## III.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최근 동향

주요 일간지 모니터링 결과 “m<sup>2</sup>” 표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3.3m<sup>2</sup> 당 가격표시 및 병기 사례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 필요

※ 3.3m<sup>2</sup>당 가격표시 대부분(76%)이며,

병기 사례(10%)도 발견

한편, 단속대상인 공공기관, 건설업계, 귀금속 판매업소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 되는 추세

※ 사용률( '08년 4월말) : 공공기관 97%,

대형건설사 81%, 귀금속상 86%

#### IV. 추진실적

##### “m2” 단위 보급

15대 건설사, 민간 건설입계 및 단체 등과 간단회 개최(5회)

- ※ “평” 단위 사용 근절 및 “m2” 단위 보급에 대한 업계입장 조율

건교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평” 단위 사용 금지 협조 요청

- ※ 건교부 : 신도시 발표보도자료, 도로교통 표시판에 법정단위 사용
-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 검정교과서에 비법정 단위 사용금지

부동산정보협회를 통해 인터넷 정보거래 단위를 “평”에서 “m2”로 전환

- ※ 관인계약서상 “평” 단위 삭제(’07.1월)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현장 밀착형 계도활동

- ※ 서울 구로, 남양주, 고양, 용인, 전주 등 모델하우스 7곳(11회)

부동산 광고 위반사례 모니터링 및 계도

- ※ ’08.1~6월까지 292건 위반사례 적발, 경고조치

##### “g” 단위 보급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귀금속 관련단체와 g 단위 정착 협의

- ※ 정수거래용 금제품 금형 틀(2g, 3g, 4g)을 5대광역시에 보급(’08.5월)

귀금속 시세 정보를 3.75g(1돈)에서 1g으로 개선

- ※ 매일경제 주요시세, 귀금속판매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채택

정수단위 주문 카탈로그 제작 보급

- ※ 귀금속 판매소 등 1000부 배포(’08.4월)

중개업자교육시 법정단위 홍보, 현장캠페인 실시, 물가모니터링 요원 활용 홍보, 지역생활홍보지 계도활동 수행

##### 홍보활동

TV 및 라디오, 선광관 등 대국민 홍보

- ※ 방송 3사(KBS, MBC, SBS)에서 상업광고(20초), 캠페인 광고(40초) 실시(’06.11~’07.2월), 인터넷 TV 광고(KBS 및 SBS, ’08.5~6월)
- ※ 지하철광고(’08.1~3월, 371개 역사), 옥외전광판 광고(광화문, 명동, 마포 등 전국 113개소, ’08.5~6월)

지역축제, 전시회 등에서 현장 캠페인 전개

- ※ 국제보석시계전시회(’08.4월), 경향하우징페어(’08.2월), 함평나비축제(’08.4~6)에 홍보관 운영

유인물 배포, 피해사례 공모, 표어포스터 응모선 등 현장밀착형 홍보

- ※ 아파트면적환산표, 책지 “단위이야기”, 계량검사 핸드북, 현수막, 표어·포스터 제작배포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 워크숍 개최(’08.5월)

#### V. ’08년도 추진방향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수요자가 동참 사용토록 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계도 위주 운영
- 지자체·관련 단체를 통한 공급자의 자율적 동참 유도
- 체계적 계도·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제고

수요자의 친숙도를 고려한 정수단위 사용

- <국토해양부> 건축·시공 관련 법규에 “평” 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기술규정, 시방서 등의 요구사항을 “m2” 정수 단위로 전환

- ※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1m2 : 0.3평의 부기 허용



- <건설업계> 분양 광고 시 정수 "m2" 단위를 사용하고 가격표시는 m2당 가격만 사용(단, 1m2≒0.3평의 부기 허용)

- <생활정보지> 아파트, 주택광고 시 "평" → "m2" 로 전환 유도

- <귀금속판매업소> 귀금속판매업 중앙회가 100여 업소에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2g, 3g, 4g 정수단위 금거래를 전국으로 확산

공급자 스스로 내국민 법정계량단위 준수 유도

- <공공기관>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추진 시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강화

※ 신도시 아파트분양 시 m2 적용 광고

※ 공공기관 기념품(매달, 행운의 열쇠) 제작시 정수단위 구매 유도

- <건설업계> 자체 광고시 법정계량단위 준수 의지 표명

※ TV 광고시 '우리 ooo사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 대신 m2 씩니다' 자막 삽입 추진

※ 분양광고시 주택 및 토지규모를 'm2' 정수단위로 표기 유도

- <귀금속 판매업소> 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주도로 "g" 단위 판매 홍보

체계적·계도 홍보 추진

방송광고, 옥외진행관 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 일반 국민의 수용도 제고 추진

- 주요 분회행사, 주택 및 귀금속 관련 전시회와 연계 홍보

-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연합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

| 기술표준2008.7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이	· 미터 단위 (cm, m, 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609 34 km 1 야드 = 0.914 4 m
넓이	· 제곱미터 단위 (m <sup>2</sup> , km <sup>2</sup> , ha)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 헤베	1 평 = 3.305 785 m <sup>2</sup> 1 정보 = 9 917 m <sup>2</sup> ≒ 0.01 km <sup>2</sup> 1 에이커 = 4 046 m <sup>2</sup> ≒ 0.004 km <sup>2</sup> 1 헤베 = 1 m <sup>2</sup>
부피	· 세제곱미터 단위 (cm <sup>3</sup> , m <sup>3</sup> , L)	· 홉, 되, 말 · 석(石), 가마 · 갤런 · 루베	1 되 = 1.8 L = 1 800 cm <sup>3</sup> 1 말 = 18 L = 18 000 cm <sup>3</sup> 1 갤런 = 3.785 412 L 1 루베 = 1 m <sup>3</sup>
질량	· 킬로그램 단위 (g, kg, t)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 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